

노인의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정찬우¹, 최희정^{2*}

¹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²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enior' Use of Text Messages and SNS and Contact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Chanwoo Jung¹, Heejeong Choi^{2*}

¹Master Degre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이웃, 지인과의 접촉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8,392명으로, 노인의 문자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활용역량을 기준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노인이 문자메시지와 SNS를 모두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을 때,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모든 성원과 비대면 접촉(연락)이 가장 빈번하였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대면접촉 빈도와 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이 가족 및 친구와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 교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성원들과 관계를 지속하는데 정보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대면접촉, 전화연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of Korean older adults'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text messages with frequency of contact with 1) non-coresident adult children, 2) siblings and relatives, or 3) friends, neighbors, and acquaintances. Data were drawn from the 2017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65+ (N=8,392), and older adults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their familiarity with use of SNS and text message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for analyses. Results revealed that older users of both types of communication media reported frequent exchanges of calls, text messages, etc. with both family and friends. However, using SNS and text messages was consistently related to more face-to-face contact with non-family members. To conclude, older adults' familiarity with communication media could be key to exchanges of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and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Overall,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targeting older adults for continued involvement with their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Key Words : Older adults, Text message, Social Network Service(SNS), Informal social network, face-to-face contact, phone contac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2A01045640)

*Corresponding Author : Choi Heejeong(elphe@skku.edu)

Received January 13,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February 9,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노년기에는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과 나누는 비공식적 관계가 직장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공식적인 관계보다 중요하다[1]. 그러나 은퇴, 질병, 사별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친밀하면서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으며[2],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와 사회적 접촉의 감소는 외로움, 우울증, 치매 등 노인 개인의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위협을 줄 수 있다[3].

따라서 노년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의 경우 사망률이 고령층에서 월등히 높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활동 폭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4].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와의 고립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5],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고 있어 문자나 SNS 활용역량이 노인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이 우수한 노인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비대면 접촉을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6,7]. 실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노인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증진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8-10].

다행히 한국 노인은 다른 스마트기기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보이며[11]¹⁾ 65세 이상 노인 중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2]. 흥미로운 점은 노인들의 스마트폰 활용패턴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13]²⁾ 설문조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네 명 중 세 명은 메신저 이용자로 보인다[14]. 향후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현재 40-50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19년 기준 거의 100%에 근접하고 메신저 및 SNS 사용이 늘어난 것을 보아[14] 앞으로 고령층의 메신저 및 SNS 활

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노년기 정보격차와 정보격차의 심화가 초래하는 정보불평등이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 점수가 100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 점수가 64.3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11].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과 같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노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노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를 비롯하여 그 안에서 사용한 메신저, SNS, 지도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한 평가, 인터페이스 개선에 관한 논의를 다룬 연구가 있다[15]. 나아가 스마트폰과 앱의 사용시간과 횟수에 대한 라이프로그 분석을 시도한 연구[16]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들의 디지털기기 활용정도가 기기 및 앱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스마트폰의 메신저 같은 경우 그 활용빈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과 노인의 삶의 질을 연결시킨 선행연구가 있다[6,17]. 이러한 선행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 및 확대,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6,18]. 예를 들어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정주(Aging in place) 실현에 있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기술 습득 및 활용이 정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19].

본 연구는 노인집단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이들의 메신저 활용이 다른 기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연락 및 방문빈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³⁾를 소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과 교류임을 감안할 때 주로 노년층의 정보격차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노인의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의미와 핵심가치를 이해하는데 다소 소홀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1)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73.7%로 이들 중 스마트폰 보유 73.3%, 피쳐폰 15.5%, 스마트패드 7.8%, 기타 스마트폰 주변기기 1.9%의 보유 현황을 보인다[11].

2) 2019년 스마트폰과외존실태조사는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 98.3%가 메신저 사용이 주 콘텐츠로 밝혔고,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도 고령층 대상 사회관계서비스 이용률에서 메신저가 76.7%로 1순위로 발표되었다[13].

3) 본 연구가 분석한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이 문자나 SNS를 사용할 때 어떠한 기기를 기반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노인세대가 인터넷, 컴퓨터를 건너뛰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세대라는 점에 비추어 휴대전화로 문자나 SNS를 사용했다고 가정하였다. 어느 '기기'를 기반으로 문자나 SNS를 사용하였는가는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크게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노인이 자녀, 형제·자매와 친인척, 친구·이웃과 나누는 대면 및 비대면 접촉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접촉의 빈도가 노인에게 가용한 정서적·도구적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20,21],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교류 빈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성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교류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시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절대다수는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로 정보통신기술이 노인과 그 가족의 역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둘째, 선행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7,22],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를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연구는 주로 노인의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활용역량을 살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7,22,23]. 넷째, 정보통신기술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연결시킨 연구는 주로 가족 외 친구나 지인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이나 활동에 초점을 두거나 [7,18,22,23] 아니면 가족을 친구나 지인과 구분하지 않고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는 제한점이 있다[7,22,23]. 가족은 다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의 역사에 영향을 받고 친밀감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관계이다. 따라서 가족은 다른 비공식적 관계와 구분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가족과 그 외 비공식적 관계와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비대면 접촉(연락)과 대면접촉(만남)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대면접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7,22,23], 그 관련성이 관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팬데믹 상황과 같이 대면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비

대면 접촉과 대면 접촉은 반드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문자나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와 친인척, 그 외 가까운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과 만남 빈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와 친인척, 그 외 가까운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비대면 접촉)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와 친인척, 그 외 가까운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대면 접촉)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

2. 문헌고찰

노인과 정보통신기술을 연결한 실증적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만 조사하거나 여러 전자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활용역량을 파악하였기에, 문자메시지와 SNS에 초점을 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을 사회적 관계와 연결시킨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2.1 노인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의 중요성

노인에게 있어 비공식적 관계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과의 연락과 만남이 노인의 삶의 질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동거 자녀와의 전화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24],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녀, 이웃과의 연락 및 만남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25]. 또한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와 근접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가 있다 [26]. 자녀를 포함하여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연락이 빈번하고 자녀관계가 좋을 경우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 [27], 자녀와의 연락빈도와 인지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부적관계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 [28,29]. 일부 선행연구는 접촉의 도구로 스마트폰에 주목하여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가족, 자녀, 손자녀, 친구들과 다양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재미와 편리를 느낀다고 하였다[30].

가족 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대해 살펴보면,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독거노인과 도시와 농촌 거주 노인의 우울이 낮고, 도시노인의 경우 친구·이웃과의 만남빈도도 높을수록 우울감을 낮다는 결과가 있다[31-33]. 또한 농촌 거주 여성노인이 친척과 이웃을 자주 만날수록 건강상태가 좋으며[34], 친구가 많고 친구와의 접근성과 정서적 교류수준이 높을수록 중노년층 여성의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친구와의 접촉빈도 자체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친구와의 접촉은 긍정적·부정적인 양가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35].

자녀,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32,35,36]. 가족은 선택할 수 없고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관계이며 단기적 호혜성보다는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관계라면, 친구나 이웃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관계로 단기적 호혜성이 중요한 가치이며 유동적이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여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역량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노인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금까지 가족이 담당해왔지만, 친구나 이웃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외에서 가족이 아닌 친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36].

2.2 문자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휴대전화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문자 주고받기이다[37,38]. 문자가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문자의 간결성을 말할 수 있다. 정보 교환에 선행하는 의례적인 대화를 줄일 수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음성이나 시각적인 단서를 숨길 수 있어 편리하다[39]. 둘째, 문자는 간단하고 편리한 UI(User Interface)를 이용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즉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37]. 채팅이나 쪽지 보내기는 동시적이기도 하면서 비동시적으로 띄엄띄엄 지속하는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40]. 셋째, 문자의 특징으로 문자(text)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등 다양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다[37]. 이러한 문자

의 특성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 등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이에서 간단히 안부를 교환하거나 일상 대화와 간단한 감정을 전달할 때에는 문자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37]. 따라서 문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 강화, 확장하면서 상대방과의 친밀감,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37,3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역시 개인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38,41].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트 메시지는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등이 있다. 문자와 달리 SNS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이미 형성된 관계의 유지와 관리 뿐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38,41]. SNS 이용이 실제 오프라인 대면활동인 봉사나 기부 같은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2]. 정리하면 노년층에게 있어 SNS 사용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유지 및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SNS 활용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연락과 방문)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문자 및 SNS 활용역량이 가족과의 연락과 만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자녀, 손자녀와의 접촉빈도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자녀·손자녀와의 접촉이 활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43].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7,22]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노인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이 많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23]는 접촉대상을 분류하지 않고 통합하였고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친목단체, 종교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국외의 연구들도 가족을 제외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그 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교류는 사회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8], 미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노인들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친교모임 등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9], 노인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

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망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10]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미국 3차 년도에 걸친 종단자료인 MIDUS를 활용하여 가족과의 접촉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Wave 1(1995-1996), Wave 2(2004-2006), Wave 3(2013-2014)에서 방문, 전화, 편지를 통한 가족과의 접촉을 측정하였고 Wave 3(2013-2014)에서는 추가적으로 SNS(Skype, Facebook, Twitter, 문자채팅방 등)를 이용한 가족과의 접촉을 조사하였다. 고정효과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SNS와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여 가족과의 접촉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44].

이 외에도 문자나 SNS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관계에 성별, 학력수준, 건강상태(주관적·정신적), 배우자 및 자녀의 동거 여부, 직업, 가구소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고[22,45]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았다[45].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의 동거와 같은 가구 구성도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근로 여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용능력이 높아졌다[17,45].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 경제 및 교육수준을 확인하였다. 여성인 경우나 연령이 낮고 경제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접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친목활동과 같은 사회관계망 접촉에도 여성인 경우와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접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7,23].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934개 조사구의 10,299명을 선정한 조사자료이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의 일반 특성,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경제 상태 등 11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여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낼 수 있는 능력,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이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연락을 취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원자료의 10,299명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 최소한 전화 걸기와 받기가 가능한 노인⁴⁾으로 8,392명이다.

3.2 주요 변수

3.2.1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접촉빈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연락 및 만남 빈도이다.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은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그 외 친구·이웃·지인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연락빈도를 측정할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친구, 이웃, 지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만남빈도를 측정할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친구, 이웃,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주 4회 이상)=(6)', '일주일에 2~3회 정도(=5)', '일주일에 1회 정도(=4)', '한 달에 1~2회 정도(=3)', '3개월에 1~2회 정도(=2)', '1년에 1~2회 정도(=1)',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0)'로 재구성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연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정의하였다.

3.2.2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

독립변수인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은 노인이 문자를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는지, SNS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이 전자기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 기능별로 측정하였다. 그중에서도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 SNS 사용 여부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문자 메시지, SNS 활용역량을 4가지 유형으로 1) 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유형, 2) 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SNS는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 3) 문자 메시지 받기만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와 SNS는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 그리고 4) 문자 메

4) IADI(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항목 중 '전화 받고 걸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1,136명을 전화 걸고 받기가 불가능한 노인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선정하였다.

3.2.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남성=1, 여성=0), 연령(연속변수), 지역(도시=1, 농촌=0), 학력(초졸미만=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 이상=5), 배우자 유무(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동거 자녀 수, 비동거 자녀 수,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친구·이웃·지인 수, 자녀관계만족도(매우 만족=5, 만족=4, 그저 그렇다=3, 만족하지 않음=2, 매우 만족하지 않음=1), 사회경제적인 변수로는 총자산, 연간가구소득, 근로 여부(근로=1, 근로하지 않음=0),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로 ADL, IADL⁵⁾ 장애(도움필요=1, 완전자립=0), 인지기능 장애(MMSE-DS⁶⁾ 점수 활용 0~23점 인지기능 저하=1, 24점 이상 인지기능 정상=0), 우울(SGDS-K⁷⁾, 15개 항목을 활용 0~7점 우울증상 없음=0, 8~15점 우울증상 있음=1)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4개의 활용역량 유형별 접촉빈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으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자

- 5)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의미하며, ADL(일상생활수행능력)과 함께 노인의 자립생활 가능 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46]. 도움이 필요한 경우 '1'로, 완전 자립인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총점 0~9점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IADL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 사용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걸고 받기' 항목을 제외한 9개의 항목으로 IADL장애를 측정하였다.
- 6)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검사결과는 총점 0점부터 30점까지 분포하며 17점 이하면 치매의심, 18~23점 인지기능 저하, 24점 이상 인지기능 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46].
- 7)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15개 항목 사용, 총점 0점부터 15점까지 분포하며 0~7점 정상, 8~15점 우울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46].

메시지와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연락, 만남빈도) 간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경우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가장 높은 집단(문자 받기와 보내기, SNS 모두 사용가능)을 준거집단으로 삼은 결과를 표로 제시하되, 준거집단을 바꾸어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활용역량의 차이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의 관련성을 보다 세밀히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1과 같다. 절반 이상의 연구대상자가 65세에서 74세로 나타났으며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약 70%이고, 4명 중 1명의 노인이 자료 수집 당시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 노인의 총자산 평균은 약 3억 1천, 중위값은 약 1억 6천으로 나타났고, 연소득은 평균 약 1천 250만원, 중위값은 약 1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 대체로 신체건강(ADL장애 없음 95.3%, IADL장애 없음 87.5%), 인지건강(정상 77.7%), 정신건강(우울 정상 82.3%)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Sample

| | Variables | Freq | (%) |
|-------------------------------|---------------------|--|------|
| Gender | Male | 3,800 | 45.3 |
| | Female | 4,592 | 54.7 |
| Age | 65~74 | 5,161 | 61.5 |
| | 75~84 | 2,757 | 32.9 |
| | 85+ | 474 | 5.6 |
| Region | Urban | 5,779 | 68.9 |
| | Rural | 2,612 | 31.1 |
| Education | No formal education | 1,475 | 17.6 |
| | Elementary school | 3,073 | 36.6 |
| | Middle school | 1,531 | 18.2 |
| | High school | 1,698 | 20.2 |
| | College or more | 615 | 7.3 |
| Marital Status | Married | 5,745 | 68.5 |
| | Not married | 2,647 | 31.5 |
| Number of coresident children | | mean=0.24, sd=0.47, median=0, minimum=0, maximum=3 | |

| | | | |
|---|---------------|--|------|
| Number of non-coresident children | | mean=2.94, sd=1.37, median=3, minimum=1, maximum=10 | |
| Number of siblings and relatives | | mean=0.89, sd=1.27, median=0, minimum=0, maximum=10 | |
| Number of friends and neighbors | | mean=1.53, sd=1.97, median=1, minimum=0, maximum=30 | |
|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 | mean=3.03, sd=0.97, median=3, minimum=0, maximum=5 | |
| Household assets (₩10,000) | | mean=31,242.21, sd=50,296.89, median=16,794.08, minimum=0, maximum=999,710 | |
| Household income (₩10,000) | | mean=1,251.87, sd=1,453.48, median=1,453.48, minimum=0, maximum=31,030 | |
| Work status | Working | 2,753 | 32.8 |
| | Not Working | 5,639 | 67.2 |
| ADL | No ADL | 7999 | 95.3 |
| | One+ ADL | 393 | 4.7 |
| IADL | No IADL | 7344 | 87.5 |
| | One+ IADL | 1047 | 12.5 |
| Cognitive impairment | Not impaired | 6519 | 77.7 |
| | Impaired | 1873 | 22.3 |
| Depression | Not depressed | 6908 | 82.3 |
| | Depressed | 1484 | 17.7 |

Note: Data source is the 2017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Older adults 65+ who reported capable of making and receiving phone calls and had at least one non-coresident child (N=8,392).

4.2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대상별 접촉빈도 비교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연락, 만남)빈도의 차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문자와 SNS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노인(D1)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비동거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접촉은 문자 및 SNS 활용 수준의 차이에 보다 세밀하게 영향을 받았다. 연락의 경우 문자와 SNS 활용 수준이 조금이라도 높을수록 연락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남의 경우 연락만큼은 아니지만, 문자 보내기와 SNS 활용역량에 따라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에서는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연락패턴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남에서는 문자 받기만 가능하고 문자보내기,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이 오히려 다른 집단의 노인보다 친구, 이웃, 지인과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3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미치는 영향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D1)이 다른 노인보다 비동거 자녀

Table 2. Associations of Text Message and SNS Use with Contact Frequency by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 | Contact Frequency via Phone, Text Message, Email, Letter etc. | | | | | |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 | | | | |
|--|---|-----------|------------------------------|------------|--------------------|------------|-----------------------------------|----------|------------------------------|-----------|--------------------|-----------|
| | Non-coresident children | | Brothers, sisters, relatives | | Friends, neighbors | | Non-coresident children | | Brothers, sisters, relatives | | Friends, neighbors | |
| | Mean(sd) | F | Mean(sd) | F | Mean(sd) | F | Mean(sd) | F | Mean(sd) | F | Mean(sd) | F |
| D1: text receiving, sending, SNS (N=2,420) | 4.73 (1.18) | | 2.77 (1.45) | | 2.77 (1.45) | | 3.42 (1.40) | | 1.67 (1.14) | | 4.73 (1.40) | |
| D2: text receiving sending, no SNS (N=1,090) | 4.53 (1.27) | | 2.46 (1.41) | | 2.46 (1.41) | | 3.28 (1.44) | | 1.70 (1.23) | | 4.65 (1.56) | |
| D3: text receiving only, no SNS (N=2,113) | 4.55 (1.32) | 12.52 *** | 2.27 (1.40) | 114.12 *** | 2.27 (1.41) | 158.95 *** | 3.25 (1.39) | 6.57 *** | 1.40 (1.27) | 56.29 *** | 4.90 (1.50) | 9.292 *** |
| D4: neither text receiving nor sending, no SNS (N=2,769) | 4.55 (1.27) | | 2.05 (1.43) | | 2.05 (1.43) | | 3.31 (1.35) | | 1.25 (1.25) | | 4.69 (1.78) | |
| Total (N=8,392) | 4.60 (1.26) | | 2.37 (1.46) | | 2.37 (1.46) | | 3.32 (1.39) | | 1.45 (1.23) | | 4.75 (1.58) | |
| Scheffe | D1)D2,D3,D4 | | D1)D2)D3)D4 | | D1)D2)D3)D4 | | D1)D2,D3,D4 | | D1)D2)D3,D4 | | D3)D1,D2,D4 | |

*p < .05, **p < .01, ***p < .001

Table 3. Effects of Text Message and SNS Use on Contact via Phone, Text Message, Email, Letter etc.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 | | Frequency of Contact via Phone, Text Message, Email, Letter etc. | | | | | |
|---|--|--|------|------------------------------|------|--------------------|-----|
| | | Non-coresident children | | Brothers, sisters, relatives | | Friends, neighbors | |
| | | B | SE | B | SE | B | SE |
| Independent Variable (ref. D1: text receiving, sending, SNS) | D2: text receiving, sending, no SNS | -.11* | .04 | -.11*** | .05 | -.17** | .06 |
| | D3: text receiving only, no SNS | -.08* | .04 | -.20* | .04 | -.27*** | .06 |
| | D4: neither text receiving nor sending, no SNS | -.14** | .04 | -.26*** | .05 | -.55*** | .06 |
| Control Variables | Gender (1 = male) | -.21*** | .03 | -.42*** | .03 | -.28*** | .04 |
| | Age | .00 | .00 | -.02*** | .00 | -.02*** | .00 |
| | Region (1 = urban) | -.08** | .03 | -.05 | .03 | -.20*** | .04 |
| | Education | -.02 | .01 | .02 | .02 | -.04 | .02 |
| | Marital status (1 = married) | .11*** | .03 | -.03 | .04 | -.12* | .05 |
| | Number of coresident children | -.13*** | .03 | -.17*** | .04 | -.21*** | .05 |
| | Number of non-coresident children | .11*** | .01 | -.00 | .01 | .02 | .02 |
| | Number of brothers, sisters, relatives | .04*** | .01 | .37*** | .01 | -.01 | .02 |
| | Number of friends, neighbors | .01 | .01 | -.03*** | .01 | .25*** | .01 |
| |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 .66*** | .02 | .18*** | .02 | .04 | .03 |
| | Household assets | .06*** | .01 | .03** | .01 | .04 | .01 |
| | Household income | .04 | .02 | .12*** | .03 | .07 | .04 |
| | Work status (1 = working) | .00 | .03 | .06 | .03 | .12 | .04 |
| | ADL (1 = one or more ADL) | .08 | .07 | -.04 | .08 | -.45 | .10 |
| | IADL (1 = one or more IADL) | .10* | .04 | -.01 | .05 | -.21 | .07 |
| | Cognitive impairment (1 = impaired) | -.01 | .03 | -.10** | .04 | -.21 | .05 |
| | Depression (1 = depressed) | -.07* | .04 | -.18*** | .04 | -.55 | .05 |
| constant | .74 | .25 | 2.27 | .29 | 4.76 | .37 | |
| R ² (adj. R ²) | | .226(.224) | | .210(.208) | | .181(.179) | |
| F | | 122.17*** | | 111.27*** | | 92.25*** | |

ref = reference group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그 외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추가분석에서 준거집단을 바꾸어 가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자 받기와 보내기가 가능하나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D2), 문자 받기만 가능한 노인(D3), 모두 불가능한 노인(D4)의 집단 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면접촉인 만남빈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은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는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불가능한 노인(D4)만이 문자와 SNS 모두 사용이 가능한 노인(D1)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자와 SNS 활용역량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와 더욱 긴밀한 관련성이 있었다.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노인(D1)과 비교하여,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불가능한 노인(D4)과 문자 받기와 보내기가 모두 가능하고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D2)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노인(D1)과 문자 보내기는 받기만 가능하고 보내기가 불가능한 노인(D3)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결론 및 제언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상실이 일어나는 쉬운 시기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단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선행연구는 디지털기기의 활용역량이 친구

Table 4. Effects of Text Message and SNS Use on Face-to-Face Contact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 | |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 | | | | |
|---|--|-----------------------------------|-----|------------------------------|-----|--------------------|-----|
| | | Non-coresident children | | Brothers, sisters, relatives | | Friends, neighbors | |
| | | B | SE | B | SE | B | SE |
| Independent Variable (ref. D1: text receiving, sending, SNS) | D2: text receiving, sending, no SNS | -.06 | .05 | .00 | .04 | -.13* | .06 |
| | D3: text receiving only, no SNS | -.06 | .04 | -.07 | .04 | .02 | .05 |
| | D4: neither text receiving nor sending, no SNS | -.03 | .05 | -.11*** | .04 | -.20*** | .05 |
| Control Variables | Gender (1 = male) | -.03 | .03 | .03 | .03 | -.33*** | .04 |
| | Age | -.00 | .00 | -.02*** | .00 | .01 | .00 |
| | Region (1 = urban) | .20*** | .03 | -.13*** | .03 | -.47*** | .04 |
| | Education | -.06*** | .02 | -.01 | .01 | -.14*** | .02 |
| | Marital status (1 = married) | .14*** | .04 | -.07* | .03 | -.17*** | .04 |
| | Number of coresident children | -.18*** | .04 | -.09** | .03 | -.14** | .04 |
| | Number of non-coresident children | .12*** | .01 | -.01 | .01 | .07*** | .01 |
| | Number of brothers, sisters, relatives | .02 | .01 | .22*** | .01 | -.03* | .01 |
| | Number of friends, neighbors | -.00 | .01 | -.03*** | .01 | .11*** | .01 |
| |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 .53*** | .02 | .11*** | .02 | .04 | .03 |
| | Household assets | .06*** | .01 | .04*** | .01 | .02 | .01 |
| | Household income | .10*** | .03 | .06* | .03 | .00 | .03 |
| | Work status (1 = working) | -.05 | .03 | .11*** | .03 | .33*** | .04 |
| | ADL (1 = one or more ADL) | .03 | .08 | .011 | .07 | -.59*** | .09 |
| | IADL (1 = one or more IADL) | .23*** | .05 | -.10* | .05 | -.11 | .06 |
| | Cognitive impairment (1 = impaired) | -.08* | .04 | .02 | .03 | -.08 | .04 |
| | Depression (1 = depressed) | -.07 | .04 | -.14*** | .04 | -.38*** | .05 |
| | constant | -.14 | .28 | 1.48 | .26 | 4.79 | .33 |
| R ² (adj.R ²) | | .139(.137) | | .109(.107) | | .119(.117) | |
| F | | 67.58*** | | 51.23*** | | 56.57*** | |

ref = reference group

* $p < .05$, ** $p < .01$, *** $p < .001$

나 이웃과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의 결속,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23,43,44]. 본 연구는 특히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빈도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정서적·도구적 지원 교환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20,21]에 주목하여, 2017년 노인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8,392 명을 대상으로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빈도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노인이 문자와 SNS를 활용하는 역량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연구대상 노인 2,420명(28.8%)은 문자 받기와 보내기, SNS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반면, 32.9%의 노인은 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 비공식 사회관계망과의 연락빈도에 대한 결과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이 피쳐폰을 사용하는 노인보다 사회접촉을 많이 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23]. 한편,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 대면접촉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문자를 받기만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이 친구, 이웃, 지인과 가장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달리 자녀 및 형제·자매와의 만남은 대체로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높을수록 빈번하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Table 3)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연락빈도와 문자와 SNS 활용역량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노인이 스마트

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거나 활용역량을 갖추수록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적이다[7,18,23]. 특히 SNS 활용역량이 문자 활용역량보다 가족 간 접촉빈도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Treas와 동료들(2018)의 연구와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넷째, 대면접촉인 만남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연락빈도와는 다르게 문자와 SNS 활용역량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가족과의 만남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녀와의 만남빈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비슷한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은 형제·자매나 친구·이웃과 비교하여 성인자녀가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만남시간에 가장 제약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혹은 가족과의 만남은 의례나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자와 SNS 활용역량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자와 SNS 활용역량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져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친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재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33,36]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의 대면 접촉 대상 중 친구와 이웃, 지인과의 대면 접촉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Table 2 참조), 노년기 정신건강에 가족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48] 문자와 SNS 활용능력이 이들과의 대면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한편,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문자를 받기만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과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노인 간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고령자 통계에서 발표한 노인의 교제활동 평균시간 46분 중 대면교제가 37분을 차지하고, 음성과 문자, 메일에 의한 교제는 9분이었다는 결과[49]와 고령세대가 사회적 교류를 직접적인 대면 교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물리적 교류를 통해서만 소외감이 감소한다[50]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문자와 SNS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문자를 받기만 할 수 있는 노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자와 SNS에 의존하지 않고 대면교류 중심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현상이 문자와 SNS 활용역량에 편차가 큰 노인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밝힐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로 문자와 SNS 활용역량만이 고려되고 노인의 문자와 SNS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 횟수, 문자를 활용한 가족들 간의 대화의 성격(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 SNS 콘텐츠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접촉의 질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내 집단 간 전화통화 대비 문자와 SNS를 통한 접촉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차이가 분석에 고려될 수 없었다. 또한 비대면 접촉과 대면 접촉의 빈도 외 한 번 연락하거나 만날 때 그 연락과 만남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 등도 데이터의 한계로 고려될 수 없었다.

셋째, 횡단분석을 실시하여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문자와 SNS 활용역량에 대한 문항이 처음 포함되었는데 후속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립변수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분야의 조사자료와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에서 단일 문항의 측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 문항을 도입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NHATS), Midlife in the United States(MIDUS) 등 국내의 대표성 있는 대규모 자료가 모두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과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어 단일문항의 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노년층 사이에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기기의 이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현재 노년층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공식적 관계망을 세분화하고 접촉 방식을 구분하여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비공식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 문자와 SNS 활용역량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천적 제언을 남긴다.

학문적 제언으로 첫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으로 인해 활성화 된 비공식적 관계망이 노인의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인은 사회관계망 단절, 돌봄 공백 등의 위기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대면 접촉이 단절되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문자와 SNS 활용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노인의 정신건강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또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가족보다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가능성 제기되어 후속연구는 가족과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기로 매개된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51],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도구적 지원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과의 비대면 접촉 뿐 아니라 대면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첫째, 노인에게 있어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언택트 사회의 필수적인 생존기술로 인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배제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문자와 SNS 사용법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18]. 한편,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문자와 SNS를 활용하여 안부 및 건강 확인, 정서지원 사업 등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52].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전달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정하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에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비공식적 관계망과의 접촉 뿐 아니라 비대면 사회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역량과 별도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23]. 물질적으로 스마트기기 보유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기기 요금에 대한 비용지원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기기와 어플

리케이션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15].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해서 앱과 기기의 이용자 인터페이스(아이콘 형태나 화면 구성, 조작 등)를 만들어 노인의 스마트기기 특히 SNS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노인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비공식 사회관계망과의 연락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일상생활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사회적 자원을 유지하는데 있어 문자와 SNS의 순기능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H. S. Ryu., & M. A. Lee. (2019). Social Interactions and Cognitive Function of Korean Older Adults: Examining Differential Effects by 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2(4), 2019.12, 65-89(25 pages).
- [2]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Measuring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using multiple indicators from the NSHAP stud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suppl_1), i38-i46.
DOI : 10.1093/geronb/gbp037
- [3] Cornwell, B., Laumann, E. O., & Schumm, L. P. (2008). The social connectedness of older adults: A national profi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185-203.
DOI : 10.1177/000312240807300201
- [4] M. K. Shim. (2020). "The Senior Citizen has closed the door for half a year, has nowhere to put his mind... the elderly suffer from depression". *Chosunbiz*. Chosunilbo. 2020. 9. 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2/2020092202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5] Wang, C., Pan, R., Wan, X., Tan, Y., Xu, L., Ho, C. S., & Ho, R. C. (2020).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19 Coronavirus Disease(COVID-19) Epidemic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5), 1-25.
DOI : 10.3390/ijerph17051729
- [6] J. A. Oh., & J. W. Yoo.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32(2).
DOI : 10.24210/kapm.2018.32.2.013

- [7] M. Y. Kim., & H. J. Jeon. (2017).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3), 2017.9, 343-370(28 pages). DOI : 10.21194/kjgsw.72.3.201709.343
- [8] Morris, M. E., Adair, B., Ozanne, E., Kurowski, W., Miller, K. J., Pearce, A. J., & Said, C. M. (2014). Smart technologies to enhance social connectedness in older people who live at home.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33(3), 142-152. DOI : 10.1111/ajag.12154
- [9] Kim, J., Lee, H. Y., Christensen, M. C., & Merighi, J. R. (2016). Technology access and us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ocial engagement among older adults: Do women and men differ?.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DOI : 10.1093/geronb/gbw123
- [10] Cotten, S. R., Anderson W. A., & McCullough, B. M. (2013). Impact of internet use on loneliness and contact with others among older adults: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2), e39. DOI : 10.2196/jmir.2306
- [1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2019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12] Poushter, J., Bishop, C., & Chwe, H. (2018). Social media use continues to rise in developing countries but plateaus across developed ones. *Pew Research Center*, 22, 2-19.
- [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14] Y. H. Kim. (2020). Trends in the possession and use of smart media among the middle and elderly. *KISDI STAT Report*, 20-10.
- [15] Hafez, A., Wang, Y. K., & Arfaa, J.(2017, July). An accessibility evaluation of social media through mobile device for elderly.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pp.179-188)*. Springer, Cham. DOI : 10.1007/978-3-319-60492-3_17
- [16] H. W. Lim., & H. S. Lee. (2018). A Study on the Services for Managing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IT Technology - Focused on the Lifelog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3), 2018.6, 71-78(8 pages). DOI : 10.14774/JKIID.2018.27.3.071
- [17] H. J. Hwang., & Y. S. Hwang. (2017). Gaps and Reasons of Digital Divide within the Elderly in Korea : Focusing on Household Compositi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4(3), 359-386. DOI : 10.46415/jss.2017.09.24.3.359
- [18] H. S. Kim., & J. S. Shim. (2020). Digital Literacy of Elderly People and Soci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0(2), 2020.6, 153-180(29 pages).
- [19] Peek, S. T., Luijckx, K. G., Rijnaard, M. D., Nieboer, M. E., van der Voort, C. S., Aarts, S., ... & Wouters, E. J. (2016). Older adults' reasons for using technology while aging in place. *Gerontology*, 62(2), 226-237. DOI : 10.1159/000430949
- [20]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429-460. DOI : 10.1086/231213
- [21] Silverstein, M., & Giarrusso, R. (2010). Aging and family lif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039-1058. DOI : 10.1111/j.1741-3737.2010.00749.x
- [22] M. Y. Kim. (2018).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Social Activity and Social Support of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1 pp. 264-277. DOI : 10.5762/KAIS.2018.19.11.264
- [23] S. R. Um., E. Y. Choi., S. E. Cho., I. J. Chio., & Y. S. Kim. (2018).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Structured Social Network Types among Retired Older Adult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8, Vol. 38, No. 3, 481~499. DOI : 10.31888/JKGS.2018.38.3.481
- [24] K. N. Park. (200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4, Vol. 24, No. 3, 13-29. UCI : G704-000573.2004.24.3.006
- [25] J. E. Seok., & E. J. Jang. (2016).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2), 2016.6, 321-349. DOI : 10.21194/kjgsw.71.2.201606.321
- [26] Y. E. Jang., & S. Y. Kim. (2014).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with children on depression i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39 2014, pp. 1-29. UCI : G704-002139.2014.39.001
- [27] J. Y. Kim. (2017). Social Network Diversity and Cognitive Function in Late Lif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0(4), 2017.12, 1-24(24 pages).
- [28] H. J. Choi., & J. H. Min. (2015). Structural and Associational Solidarity Between Adult Children and Older Parents: Impact on Older Parents' Cognitive Function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3 no.4, 2015, pp.105-118. UCI : G704-000320.2015.33.4.002
- [29] Y. B. Kim. (2018).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 Kore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7*, 2018, pp.429-439.
DOI : 10.14400/JDC.2018.16.7.429
- [30] M. Y. Kim., Y. H. Kang., D. Y. Jung., & G. J. Lee. (2013). Older Adults' Smart Phone Use and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4(1), 2013.6, 13-22(10 pages).
DOI : 10.22284/qr.2013.14.1.13
- [31] E. J. Kim, & S. Y. Lee. (2012). The Informal Social Support Patterns and Depression in Rural Elders: Compared to Urban Elder.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2), 2012.6, 149-176(28 pages).
UCI : G704-001638.2012.28.2.002
- [32] S. Y. Lee, & E. J. Kim. (2012). The social support patterns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friends and neighbo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6, 2012.6, 137-164(28 pages).
DOI : 10.21194/kjgsw.56.201206.137
- [33] Ueno, K., & Adams, R. G. (2006). Adult Friendship: A Decade Review. In P. Noller & J. A. Feeney (Eds.), *Close relationships: Functions, forms and processes* (p. 151-169). *Psychology Press/Taylor & Francis (UK)*.
- [34] K. S. Park, & Y. R. Park. (2016). A Study on Social Network and Health of Older People in Rural Areas : A Comparison between Older Women and Older Me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1), 2016.3, 189-213(25 pages).
DOI : 10.21194/kjgsw.71.1.201603.189
- [35] J. H. Lee, & G. H. Han. (2012).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and Happ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2, no.2, pp. 170-205 (36 pages).
DOI : 10.15709/hswr.2012.32.2.170
- [36] Blieszner, R., Ogletree, A. M., & Adams, R. G. (2019). Friendship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Innovation in Aging*, 3(1), 1-18.
DOI : 10.1093/geron/igz005
- [37] E. M. Kim. (2006). Maintaining a Close Circle through Texting : The Use of SMS(Short Messaging Service)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2), 2006.4, 90-115(27 pages).
UCI : G704-000203.2006.50.2.006
- [38] B. R. Jin., Y. K. Lee., & N. K. Park. (2014). Exploring Mobile Instant Messaging Stres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8(6), 2014.11, 168-210(43 pages).
UCI : G704-000045.2014.28.6.004
- [39] Duggan, M., & Smith, A. (2013). *Cell internet use 2013*. Washington, DC: *PewResearchCenter*.
- [40] Grinter, R. E., & Eldridge, M. A. (2001). y do tngrs luv 2 txt msg?. In ECSCW 2001 (pp. 219-238). *Springer*, Dordrecht.
DOI : 10.1007/0-306-48019-0_12
- [41] S. H. Lee., S. I. Kim., & H. Y. Kim. (2013). An Investigation on the Motivation and the Reciprocity of the Usage of Mobile Messengers and Its User Immersion : Focusing on Kakaotalk. *Journal of Digital Design* 13(1), 2013.1, 479-488(10 pages).
DOI : 10.17280/jdd.2013.13.1.046
- [42] S. T. Ha. (2012).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and Socio-Politic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4), 2012.12, 575-606(32 pages).
UCI : G704-001590.2012.12.4.015
- [43] J. G. Lee., & S. H. Tak. (2020).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an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or Grandchildren via ICT on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20, Vol. 40, No. 3, 413-428.
DOI : 10.31888/JKGS.2020.40.3.413
- [44] Treas, J., & Gubernskaya, Z. (2018). Did Mobile Phones Increase Adult Children's Maternal Contact?. In *Families and Technology(pp. 139-153)*. *Springer, Cham.*
DOI : 10.1007/978-3-319-95540-7_8
- [45] J. H. Oh. (2017). Categorizing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and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 Toward Basic Competence in Use of Digital Media and Service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4(2), 2017.6, 39-81(43pages).
- [46] K. H. Jung., Y. H. Oh., Y. K. Lee., M. A. Oh, E. N. Kang, et al., (2017). 2017 Korean National Survey on Elderly, Policy Report 2017-5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47] Statistics Korea. (2020). 2019 Social research. *Statistics Korea*.
- [48] Huxhold, O., Miche, M., & Schüz, B. (2014). Benefits of having friends in older ages: Differential effects of informal social activities on well-being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3), 366-375.
DOI : 10.1093/geronb/gbt029
- [49] Statistics Korea. (2020). 2020 Elderly Statistics. *Statistics Korea*.
- [50] H. J. Choi. (2018). Division of Social Interaction Community Across Generations and Its Relations with Social Isol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57, 2018, pp.5-27.
DOI : 10.17997/SWRY.57.1.1
- [51] Dienlin, T., Masur, P. K., & Treppe, S. (2017). Reinforcement or displacement? The reciprocity of FtF, IM, and SNS communication and their effects 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2(2), 71-87.
DOI : 10.1111/jcc4.12183
- [52] Seoul Welfare Foundation. (2020).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for Corona 19 in 2020. *Seoul*

Welfare Foundation. 2020-8.

정 찬 우(Chan-Woo Jung)

[정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노년학
- E-Mail : chanwoo1204@naver.com

최 희 정(Hee-Jung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학사)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석사)
- 2005년 8월 :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중노년기 발달, 가족관계학, 노년학
- E-Mail : elphie@skku.edu